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43조3천억 푼다

금융위,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PF사업장 9조 투입
건설사 유동성 지원…"정상현장 살려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정부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43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43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다음달부터 신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41조6천억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7천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 21조3천억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12조3천억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5조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1조원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도 7천억원 늘린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1조5천억원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1조3천600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중소서민금융권 이용 차주들을 위한 3천억원 규모 이자 환급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달부터 6천억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다양한 경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의 또 다른 축은 PF 사업장이다.

금융위는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조→30조원)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캠코의 1조1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 지원 방안으로 본 PF 단계의 사업장에도 대출해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천억원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천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천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미주진출 업무협약 광주 북구와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27일 미국 월드옥타 LA지회에서 문인 북구청장, 손애드워드 LA지회장, 김동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성공적인 경제발전 교류와 중소기업 미주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북구 제공〉

올해 첫달 출생아 2만1천명 '역대 최저'

인구 51개월째 자연감소…평일 일수 늘면서 혼인 건수 11.6%↑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천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천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2022년(-1.0%)과 지난해(-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천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천49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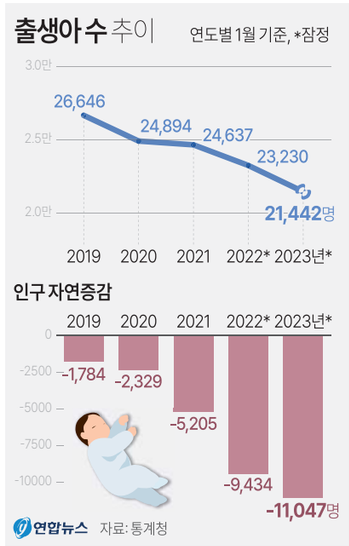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천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천85건(11.6%) 늘어난 2만8건 이뤄졌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두고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지난해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 단위로 보면 전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천940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화장품 수출 적극 돕는다"

지역중기청 '수출 전략포럼'서 마케팅 지원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광주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광주·전남 화장품 산업 수출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화장품 수출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지역 화장품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관련 기업의 수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54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0.37%인 2천만 달러에 불과해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럼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화장품 인허가 이슈 및 주요국 인허가 준비 안내와 전문 강사의 해외마케팅 트렌드 교육 및 수출 상품 기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외 규격 인증 관련 1:1 전문 상담을 통해 수출 예정 제품의 인증 획득 기간, 시험 규격, 비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한층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화장품업계의 해외 진출 등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010-6670-9800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유흥가능 (룸,노래홀,홀덤빠)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 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융4억)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전남

광산구 신창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타)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

062-382-5500